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1월 미 소비자 신뢰도 악화
- WSJ: 미국인들 소비 바뀐다: 과소비 줄이고 빚 갚길 원해
- NYT: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잠시 중단하는 이유
- WSJ: '연준의 관세 정책 대응은 향후 물가에 달렸다'
- WSJ: 올해 새로운 인물들로 연준 정책 바뀔 수 있어

[미국 금융]

- WSJ: 덩시크, 기술주와 월가를 뒤집어 놓다
- Bloomberg: 관세 위협이 다시 어젠다가 되면서 달러 상승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미국 보호 위해 보편 관세 시행하겠다"

[주택]

- Bloomberg: 미 주택값 빨리 오른다

[오일]

- NYT: 석유 회사들, 트럼프에 동의하나 석유 생산 늘리진 않아

[인공지능]

- WSJ: 덩시크, AI 전력 소비에 의문 제기
- Bloomberg: 덩시크, 미국 AI 산업에 큰 파장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echCrunch: 스포티파이 "작년 음악 산업에 100억불 지불"
- WSJ: CVS, 쇼핑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 Bloomberg: Verizon, 투자자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FiananceYahoo: US consumer confidence deteriorates further in January **1월 미 소비자 신뢰도 악화**

- 미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월 미 소비자신뢰지수가 악화됐다. 2개월 연속 악화다.
- 오늘 화요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의 상향 조정치 109.5에서 104.1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105.6으로 예상했었다.
- 이 기관의 관계자는 "현재 노동 시장 여건이 지난 9월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즈니스 여건 역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인플레이와 고물가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WSJ: The Americans Pledging to Buy Less—or Even Nothing 미국인들 소비 바뀐다: 과소비 줄이고 빚 갚길 원해

-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선 ‘2025년 구매하지 않기’가 트렌드이며, 사람들이 관련 경험과 팁을 공유하고 있다.
- 미국인들은 불필요한 제품 구매를 줄이고 기존 사용 중인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젝트 팬(project pan)’과 같은 소비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프로젝트 팬에서 팬은 화장품의 밑바닥을 뜻하는 말로 바닥까지 긁어서 끝까지 사용한다는 의미다.

WSJ 기사

NYT: The Fed Is About to Hit Pause on Rate Cuts. Here’s Why.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잠시 중단하는 이유

-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이 유가를 떨어뜨릴 것이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러나 연준 파월 의장은 12월 마지막 공식 모임에서 경제가 견조하고 물가가 높은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었다.
- 이번 주 수요일 연준 정기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금리 인하는 당분간 중단된다.
- 연준 관리들은 인플레이 둔화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NYT 기사

WSJ: Fed’s Tariffs Response Hinges on Where Americans Think Prices Are Headed ‘연준의 관세 정책 대응은 향후 물가에 달렸다’

-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관세 정책은 인플레를 부채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인플레가 높은 상황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인플레 우려가 크다.
-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때 인플레 전망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올해 금리 인하 여부는 트럼프 관세 시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연준은 관세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다.
- 현재 연준 관리들은 소비자 설문 및 시장 지수를 통해 예상 인플레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설문에서 따르면 인플레 기대치는

지난 대선 이후 더 올랐다. 향후 물가 상승에 대비해 미리 자동차와 내구재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WSJ: New Voters Could Shake Up Fed Meetings This Year 올해 새로운 인물들로 연준 정책 바뀔 수 있어

- 연준 금리 정책에 표결하는 관리 11명 중 4명이 순번제에 따라 바뀔 예정이다. 시카고, 보스턴, 세인트루이스,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가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된다.
- 이 중 시카고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비둘기파이다. 남은 3명 중 1명은 인플레이 둔화를 강조하는 매파이며, 나머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하지만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얼굴이다.
-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올해부터 금리 정책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Day DeepSeek Turned Tech and Wall Street Upside Down 딥시크, 기술주와 월가를 뒤집어 놓다

- 지난 2년 동안 인공지능 열풍으로 증시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됐다. 특히 엔비디아 등 다른 기술 업체들과 나스닥 지수가 기록적인 상승세에 크게 기여했다.
- 그러나 어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DeepSeek가 기술주와 월가를 뒤집어 놓았다. 엔비디아는 어제만 6천억 달러의 자금이 사라졌으며, 월가에선 1조 달러 자금이 증발했다.
- DeepSeek는 OpenAI와 비슷한 성능이면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반도체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고급 반도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이날 엔비디아 주식은 17%,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은 10% 이상, S&P500 기술 섹터는 5.6% 떨어졌다. 지난 4년 이상 기간 중 당일 거래로서는 최악의 하락세였다.

WSJ 기사

Bloomberg: Dollar Climbs as Trump Puts Tariff Threats Back on the Agenda

관세 위협이 다시 어젠다가 되면서 달러 상승

- 최근 트럼프와 신임 재무장관이 광범위한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늘 화요일 달러는 다른 선진국 통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트럼프가 철강, 구리, 반도체 칩 등 모든 물품에 대해 보편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후에 대략 0.5% 상승했다.
- 이달 초, 트럼프 경제팀에 관세 조치를 천천히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후에 달러는 엇치락뒤치락하던 중이었다.
- 그런데 연방 재무부의 새로운 수장 Scott Bessent가 어제 월요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편 관세를 2.5%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그 직후 트럼프는 2.5%보다 더 높은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Renews Universal Tariff Threat to 'Protect Our Country'

트럼프 “미국 보호 위해 보편 관세 시행하겠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급망 개편을 위한 광범위한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2.5%보다 더 큰 보편 관세를 시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그는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관세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어제 월요일 밤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 이 같은 발언 전에 신임 연방 재무장관은 2.5%로 보편 관세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했었다.
- 그는 의약품,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 등 구체적인 부문에서 관세 시행을 약속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타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는 대신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일자리와 제조시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Home-Price Growth in US Accelerates as Buyers Forge Ahead

미 주택값 빨리 오른다

- 11월 미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S&P CoreLogic Case-Shiller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2023년 11월보다 3.8% 상승했다. 10월 연간 상승률은 3.6%였다.
- 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데이터를 측정한 것이다.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30년 만기 모기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때였다. Realtor는 이 3개월 동안 수요가 늘어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이달 초 7%를 넘었다. 현재 높은 대출 비용은 다시 주택 수요를 압박하고 있다. Realtor의 수석 경제 연구 분석가 Hannah Jones는 2025년의 시작이 험난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NYT: Oil Companies Embrace Trump, but Not 'Drill, Baby, Drill'

석유 회사들, 트럼프에 동의하나 석유 생산 늘리진 않아

- 트럼프 대통령은 친 화석연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석유 회사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회사가 트럼프의 공약대로 석유 시추와 생산을 늘리진 않을 것이다.
- Liberty Energy의 회장 Ron Gusek은 “석유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많지만, 실제로 시추 활동 증가로 이어지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 시추 활동이 실제로 증가하기 위해선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석유 회사는 이미 기록적인 수준으로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이라는 트럼프의 목표와 부딪힌다.

NYT 기사

[인공지능]

WSJ: DeepSeek Is Upending Wall Street's Big AI Power Trade

딥시크, AI 전력 소비에 의문 제기

-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미국 대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중국 DeepSeek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발전소, 광업 관련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는 AI 관련 파장이 단순히 반도체 제조업체와 빅테크 기업을 넘어 석유, 가스, 유틸리티 등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하지만 분석가들은 결정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아직 DeepSeek의 기술 한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WSJ 기사

Bloomberg: DeepSeek Challenges Everyone's Assumptions About AI Costs

딥시크, 미국 AI 산업에 큰 파장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 빅테크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알파벳 사장 Ruth Porat은 “우리는 1년 정도 앞서 있지만 미국의 우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은 새로운 AI 모델인 R1을 출시했다. R1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미국 주요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 R1 출시의 여파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미국 AI 기업들은 DeepSeek의 기술을 분석하고 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DeepSeek의 R1은 인상적이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echCrunch: Spotify says it paid \$10 billion to music industry last year 스포티파이 “작년 음악 산업에 100억불 지불”

- 오늘 화요일, 오디오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작년 음악 산업에 1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스포티파이가 아티스트에 제대로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음반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 IFPI)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5억 명이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
- 2024년 3분기 스포티파이 구독자 수는 2억5천2백만 명을 넘었다. 스포티파이 사용자 중 60%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스포티파이는 1만 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스포티파이 스트리밍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 이달 초, 음악 금융 플랫폼 Duetti는 독립 아티스트의 스트리밍 수익이 몇 년간의 하락세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TechCrunch 기사

WSJ: CVS Wants to Help You Spend Less Time in CVS CVS, 쇼핑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 CVS는 고객들의 쇼핑 시간을 줄이고 결제를 위해 긴 줄에 서는 것처럼 불편한 경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제 고객들은 CVS 앱을 통해 처방전을 빠르게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으며, 제품이 진열된 잠긴 캐비닛을 열 수도 있다.
- 저명한 분석가 Don Scheibenreif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더 나은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을 보인다고 말했다. CVS는 2024년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소매 약국 체인들은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약값 인상, 유동 인구 감소, 지속적인 약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장을 폐쇄하는 등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해야 했다.

WSJ 기사

Bloomberg: Verizon Beats Investor Outlook With Mobile, Broadband Gains

Verizon, 투자자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

- Verizon은 신규 고객 증가로 투자자의 전망을 상회하는 4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Verizon의 월간 휴대폰 가입자 수는 56만8천명 증가했다. 분석가들은 49만8천명을 예상했었다.
- 광대역 가입자는 40만8천명으로, 분석가들의 예상인 22만7천명보다 거의 두 배 많았다. Fios 광케이블 고객은 5만1천명, 고정 무선 사업 고객은 37만3천명 늘어났다.
- Verizon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맞춤형 모바일 및 광대역 요금제를 제공하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할인과 같은 특전을 제공했다. 또한 작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사업 확장을 위해 Frontier Communication을 95억9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젠슨황 자산 하루새 29조원 증발...IT 갑부들 '딥시크 충격'
오라클 회장 자산도 32조 원↓...저커버그·베이조스 자산은 오히려 증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인공지능(AI)이 세계 갑부들의 자산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갑부 500위에 드는 자산가들은 이날 하루 약 1천80억 달러(약 156조2천760억 원)를 잃었다.

딥시크 충격으로 전 세계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주요 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